

密教經典의 版畫本과 版畫의 插入에 관한 연구

A Bibliographic Study of Sutras in Esoteric Buddhism
with Engravings and Engravings Insertion

禹 秦 雄 (Woo, Jin-Woong)*

◁ 목 차 ▷

- | | |
|--------------------|---------------------------|
| 1. 緒 言 | 4.1 본문의 계통은 다르나 판화는 같은 경우 |
| 2. 佛敎版畫의 形成과 佛敎版畫本 | 4.2 본문의 계통은 같으나 판화는 다른 경우 |
| 3. 密敎經典 版畫本의 諸版本 | 4.3 다른 경전에서 차용된 경우 |
| 3.1 眞言·陀羅尼經 | 5. 結 言 |
| 3.2 佛敎儀式集 | <참고문헌> |
| 4. 版畫의 插入 유형 | |

< 초 록 >

密敎經典에 수록된 판화는 각종 陀羅尼經 및 眞言集, 佛敎儀式集 등 20여종에 삽입되어 있으며, 판화의 종류로는 變相圖, 插圖, 手印圖, 佛像圖, 祖師圖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간행된 밀교경전 내에 판화가 수록되어 있는 판본을 개괄하고, 그 중 2회 이상 간행된 같은 계통의 판본을 대상으로 판화의 插入과 借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고찰되었다.

대부분의 판화본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동일 계통 판본의 본문과 판화를 함께 번각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과 판화 중 한 부분을 다른 계통의 판본이나 다른 서명의 경전에서 해당부분을 채택하여 번각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서명의 경전이나 같은 서명의 다른 계통의 판본에서 일부의 판화만 借用하기도 하였다.

이는 본문의 변화로 인해 본문은 새로운 板下本을 만들었으나 판화까지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계통의 판본에서 판화부분만 채택하였거나 이전에 간행된 동일 계통의 판본에 판화가 없어 해당 사찰에서 새로운 변상도를 판각하여 삽입하였기 때문이다. 또 간행 당시 전체 판화의 불필요성으로 인해 판화 중 일부만 다른 계통의 판본이나 다른 서명의 경전에서 채택하여 삽입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要語: 版畫, 經版畫, 佛敎版畫, 佛敎版畫本, 密敎經典

* 慶北大學校 嶺南文化研究院(jwoong78@naver.com)

접수일: 2011년 6월 1일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7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8일

<ABSTRACT>

Engravings are contained in more than 20 kinds of Sutras of esoteric buddhism, including buddhist dharani, holy words of Buddha, buddhist ceremony, etc. Those engraving include ‘Transformation pictures’(變相圖), illustration, finger-shapes of Buddha, Buddha image, the ancient sage of Buddhism and so forth.

This study made a bibliographic examination of the illustrated Sutras of esoteric buddhism in Korea, and especially the sutras published more than two times with engravings and illustrations. The result shows the following fact:

Most sutras with engravings were originated from the text and engravings of the same root. But some of them had either texts or engravings re-engraved from the different editions or scriptures with different titles. In such cases, the engravings didn’t match well with the text or content.

It might be because the change in contents led to the production of a new base print, but did not necessarily need new illustrations. For such sutras, the engravings were adopted from the previously made sutras of different roots, or only new ‘transformation pictures’ were engraved and added by temples. In other cases, since the entire engravings were not needed at the time of publishing sutras, only few engravings were adopted from the editions of different roots or scriptures with different titles.

Key words: engraving, Sutra engraving, Buddhist illustration, illustrated Sutra,
Sutra of esoteric buddhism

1. 緒 言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후 崇佛政策과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불교경전이 간행되었다. 불교경전 중에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화본인 攄持寺版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하 「寶篋印陀羅尼經」로 약칭함.)(1007)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밀교경전에 판화가 포함되어 있다. 밀교경전 중 판화가 수록된 것으로는 약 20여종이 확인되었으며, 여기에는 插圖, 變相圖, 說法圖, 韋太天圖, 手印圖, 觀音圖, 佛像圖, 祖師圖 등 다양한 형태의 판화가 삽입되어 있다.

版畫本¹⁾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初刊일 경우 書寫者 및 畫員이 본문과 圖像을 넣은 板下本을 만들어 刻手가 새기는 것과 이전의 목판을 後刷하거나 경전의 飜刻 또는 再飜刻의 지속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판화본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 역시 동일한 경전의 지속적인 간행이 요구될 시 木板이 확보되면 後刷하지만 木板이 마모되었거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새로운 板下本을 만들어 간행하거나 이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번각하고 필요할 경우 序·跋文 및 刊記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계통을 가지는 판본은 목판을 새기는 과정에서 생긴 형태적인 변화가 약간 있을 뿐 다른 것은 거의 일치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본문과 판화가 함께 섞여져 있는 판화본일 경우 같은 계통의 경전에 수록된 본문과 판화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밀교경전의 판화본과 판화의 유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 2회 이상 간행된 동일한 계통의 판본을 대상으로 하여 판화의 插入과 借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 인해 版畫本에서 版畫의 插入, 借用에 대한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版畫本」이라 함은 문자, 기호 형태를 제외한 인물, 사물 등의 형상이 있는 그림 형태를 넣어 목판에 새겨 찍은 경전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經版畫」라고도 한다.

2. 佛敎版畫의 形成과 佛敎版畫本

불교판화의 발생에 대하여는 먼저 인쇄기술의 창안, 즉 佛印과 塔印과 연관하여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 판화 양식인 佛印과 塔印은 佛經과 함께 7세기 후반에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소개 또는 전래되었다. 중국에 불경과 함께 佛印類가 들어와 초기에는 寫經으로 功德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사경의 대상은 여러 불경 중에서도 특히 陀羅尼經이 주된 것이었다. 또 사경은 寫經納塔의 佛事가 행하여 사경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불경을 다량으로 만들어 많이 찍어낼 수 있는 佛印과 塔印의 방법을 적용하여 불경을 새기는 목판인쇄술을 탄생시켰다.²⁾

신라시대의 인쇄물은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외에 문헌상으로는 신라 哀莊王 때의 海印寺 大藏經 雕造說과 羅末의 新羅時 인출사례의 기록이 전해지고, 7세기 중엽에 新羅의 文武王은 唐나라와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신라의 문화나 미술은 더욱 발달되어서 한국 역사상 황금기를 이루었고 이 땅에 불교문화를 꽃피우며 고려시대로 계승되었다.³⁾ 불교판화는 초기에는 佛印이나 塔印에서 점차 큰 형태의 판화를 이루기도 하였고, 이러한 것이 불교경전에 도입되어 變相圖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751년경 간행된 것으로 變相圖는 없으나 755년에 필사된 白紙墨書 「大方廣佛華嚴經」은 발달된 형태의 變相圖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목판본에도 반드시 經版畫가 있었으리라 추정된다.⁴⁾

현존하는 고려시대 版畫本은 1007년 攄持寺에서 간행된 「寶篋印陀羅尼經」의 變相圖와 初雕大藏經 내의 「御製秘藏詮」 판화가 전해져 고려시대 판화의 세밀함과 정교한 판각술 등 당시의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 文宗 4年(1050)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佛說解百生冤結陀羅尼經」⁵⁾과 12세기 간행으

2)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0), 17-18.

3) 李慶成, 「韓國美術史」(서울: 문화교육출판사, 1973), 29.

4) 朴桃花,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博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7), 15.

5)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17-18.

로 추정되는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⁶⁾의 卷首에는 菩薩圖와 變相圖가 있고, 南禪寺 소장의 「慈悲道場懺法」 및 계명대와 호림박물관 소장의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에 梁皇寶懺圖와 佛像圖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海印寺에 전해지는 周本과 晋本 「大方廣佛華嚴經」 및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 周本 「華嚴經」 卷26, 28, 36 變相圖 및 海印寺 所藏 經板에 포함된 「佛說預修十王生七經」, 「金剛般若波羅密經」, 「妙法蓮華經」, 「父母恩重經」 등에서 고려관화가 확인된다. 조선시대에는 「妙法蓮華經」, 「金剛經」, 「六經合部」, 「大方廣佛華嚴經」, 「佛說阿彌陀經」, 「佛說觀無量壽佛經」, 「地藏菩薩本願經」, 「父母恩重經」, 「佛說大目連經」,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비롯하여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觀世音菩薩靈驗略抄」, 「佛說壽生經」,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現行西方經」, 「諸眞言集」, 「五大眞言」 등의 밀교경전에 다양한 관화가 삽입되어 있다.

3. 密敎經典 版畫本の 諸版本

여기서는 眞言·陀羅尼經과 佛敎儀式集으로 나누어 각 판본에 수록된 관화의 유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眞言·陀羅尼經

3.1.1 「寶篋印陀羅尼經」

1007년 攄持寺에서 간행된 韓國 最古의 木版畫本⁷⁾으로 卷首 變相圖는 본문
의 내용을 표현한 세 장면으로 이루어졌다. 우측에는 낡은 古塔을 만나 說法하는

6) 海印寺聖寶博物館, 「海印寺毘盧遮那佛 腹藏遺物 特別展」(陝川: 海印寺, 2008), 54.

7) 東京博物館 所藏本과 국내에는 故 金完燮 所藏本 및 2007년에 安東 普光寺 觀音菩薩坐像에서 발견된 佛腹藏本(寶物 1571號)이 전해진다.

것으로 시작된다. 그림의 가운데는 釋迦世尊이 있고, 좌측으로 無垢妙光의 婆羅門家로 供養받기 위해 향하는 도중 菩薩聲聞 등의 大衆에 의해 안내받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3.1.2 「佛說解百生冤結陀羅尼經」

세로 8.5cm, 가로 21.3cm의 7면으로 된 折帖本으로, 文宗 4年(1050)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⁸⁾ 첫 장에 寶蓋가 있고, 蓮花臺 뒤에 頭光과 身光을 지닌 菩薩像이 새겨져 있다.

3.1.3 「佛頂心陀羅尼經」

王室發願版(1485), 解脫菴版(1561), 奉佛庵版(1631), 梵魚寺版(1642), 新光寺版(1711), 三聖菴版(1881)에 판화가 있으며, 여기에는 水月觀音圖, 插圖, 韋太天圖, 說法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계통화하면 <표 1>과 같이 王室發願版 계통의 解脫菴版(<표 1> 판본계통항⁹⁾의 'a')을 제외한 그 밖의 奉佛庵版, 新光寺版, 三聖菴版은 독자적으로 간행되었다.

<표 1> 「佛頂心陀羅尼經」의 版本과 수록 版畫

版本	版本系統	版畫類型	觀音圖	位牌	插圖	韋太天圖	說法圖
王室發願版(1485)	a	a	○	○	○	○	×
解脫菴版(1561)	a	a	○	○	○	○	×
奉佛庵版(1631)	b	(부분)a	○	○	×	○	×
梵魚寺版(1642)	c	독자	○	×	×	×	×
新光寺版(1711)	d	독자	○	○	○	○	×
三聖菴版(1881)	e	독자	×	○	×	×	○

8) 南權熙(2002), 17-18.

9) 판본계통에서 알파벳이 같은 것은 판본의 계통이 같은 것을 의미하며, 알파벳이 다른 것은 판본의 계통이 다른 것이다. 판화유형에서 알파벳이 같은 것은 동일한 판본계통 안에 수록된 판화가 같은 것을 의미하고, '독자'는 해당 판본에만 있는 판화를 의미한다.

3.1.4 「觀世音菩薩靈驗略抄」

「觀世音菩薩靈驗略抄」의 판본은 甘露寺版(1716), 證心寺版(1721), 釋王寺版(1728), 普賢寺版(1728), 神光寺版(1732), 伽倻寺版(1762), 20世紀初 刊行本の 7종이 확인되었다.

7종의 판본계통은 <표 2>와 같이 甘露寺版 계통의 證心寺版·釋王寺版·神光寺版(<표 2> 판본계통항의 'a'), 普賢寺版과 伽倻寺版(<표 2> 판본계통항의 'b')이 동일한 계통이다. 각 판본에는 모두 觀화가 있으며, 수록된 觀화는 水月觀音圖, 觀音菩薩圖, 畫千手 50呪解圖¹⁰⁾의 3종이다.

<표 2> 「觀世音菩薩靈驗略抄」의 版本과 수록 版畫

版本	版本系統	版畫類型	版畫名
甘露寺版(1716)	a	a	水月觀音圖, 觀音菩薩圖, 畫千手
證心寺版(1721)	a	a	"
釋王寺版(1728)	a	a	"
普賢寺版(1728)	b	a	"
神光寺版(1732)	a	a	"
伽倻寺版(1762)	b	a	"
20世紀初	c	독자	"

3.1.5 「諸眞言集」

「諸眞言集」은 安心寺版(1569), 神興寺版(1658), 佛影臺版(1688), 萬淵寺版(1777), 望月寺版(1800)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安心寺版과 神興寺版(<표 3> 판본계통항의 'a')이 동일한 판본 계통이다

安心寺版은 본문 중 앞부분인 「佛頂心經」에 3종의 圖像,¹¹⁾ 그림형태의 符籙, 說法圖, 位牌가 수록되어 있다. 萬淵寺版은 安心寺版과는 變화된 符籙과 水月觀

10) 이 圖像은 주로 「畫千手」라고 불리나 「畫千手」는 「觀世音菩薩靈驗略抄」의 일반적인 서명으로 사용되므로, 여기서는 「畫千手50呪解圖」라 하였다.

11) 「佛頂心陀羅尼經」의 上中下卷의 卷首에 삽입되어 있는 觀音菩薩의 도상이다.

音圖, 畫千手 50呪解圖가 있다. 이 중 畫千手 圖像은 이전에 간행된 『觀世音菩薩靈驗略抄』에 실린 도상을 借用하여 翻刻한 것이다.

<표 3> 「諸眞言集」의 版本과 수록 版書

版本	版本系統	版書類型	版書名
安心寺版(1569)	a	a	佛頂心經 第1·2·3圖, 符籍, 說法圖·位牌
神興寺版(1658)	a	a	"
萬淵寺版(1777)	b	b	符籍, 水月觀音圖·位牌, 畫千手 50呪解圖
望月寺版(1800)	c	c	符籍

3.1.6 「五大眞言」

「五大眞言」은 圓通菴版(1484), 王室發願版(1485), 鐵窟版(1531), 哲菴版(1550), 雙溪寺版(1634)이 전해진다.

이 중 圓通菴版¹²⁾(<표 4> 판본계통항의 'a')을 제외한 王室發願版 및 이후의 판본은 모두 王室發願版 계통(<표 4> 판본계통항의 'b')으로 동일하다. 모든 판본에는 四十二手眞言의 도상이 있으나 圓通菴版과 王室發願版 계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哲菴版의 경우 四十二手眞言의 도상은 같으나 2종의 八相圖,¹³⁾ 즉 第5圖인 雪山修道相과 第6圖인 樹下降魔相이 삽입되어 있다.

<표 4> 「五大眞言」의 版本과 수록 版書

版本	版本系統	版書類型	版書名
圓通菴版(1484)	a	a	四十二手眞言
王室發願版(1485)	b	b	"
鐵窟版(1531)	b	b	"
哲菴版(1550)	b	b+	" + 八相圖
雙溪寺版(1634)	b	b	四十二手眞言

12) 祇林寺 毘盧遮那佛 腹藏本(寶物 959호)으로, 『禪宗唯心訣』, 『涵虛堂得通和尚行狀』, 『永嘉集十章讚頌并序』와 함께 合綴되어 있다.

13) 釋迦牟尼의 일생을 8장면으로 압축·묘사한 그림으로, 兜率來儀 - 毘藍降生 - 四門遊觀 - 踰成出家 - 雪山修道 - 樹下降魔 - 鹿苑轉法 - 雙林涅槃으로 표현된다.

3.1.7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의 판본은 肅川府館北版(1560), 刊行地 未詳의 1567年版, 鷲岩寺版(1568), 伽倻寺版(1621), 1908年版이 확인되었다. 이 중 언해본인 肅川府館北版(1560)과 刊地未詳의 1567年版(<표 5> 판본계통항의 'a'), 漢文本인 鷲岩寺版(1568)과 伽倻寺版(1621)이 동일한 계통(<표 5> 판본계통항의 'b')이다. 1908年版은 한문에 한글토만 달았으며 본문체계도 변화가 있다.

판화는 肅川府館北版과 같은 계통인 1567年版의 卷首에 說法圖와 位牌, 鷲岩寺版 계통은 六字觀念圖¹⁴⁾와 位牌, 1908年版은 位牌만 있다.

<표 5>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의 版本과 수록 版畫

版本	版本系統	版畫類型	版畫名
肅川府館北版(1560)	a	a	說法圖, 位牌(2종)
1567年版	a	a	說法圖, 位牌(2종)
鷲岩寺版(1568)	b	b	六字觀念圖, 位牌(1종)
伽倻寺版(1621)	b	b	六字觀念圖, 位牌(1종)
1908年版	c	c	位牌(1종)

3.1.8 「楞嚴經」(原書名 ‘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고려본에는 판화가 수록된 판본이 없고, 조선시대 판본 중 花岩寺版(1433), 慈悲嶺寺版(1489), 石頭寺版(1547), 松廣寺版(1609), 雲興寺版(1672), 普賢寺版(1682), 龍興寺版(1692)에 수록되어 있다.

이 중 花岩寺版 계통의 판본(<표 6> 판본계통항의 'a')에서는 동일한 도상적 구성을 가진 變相圖가 있으나 1401年版 계통(<표 6> 판본계통항의 'b')은 普賢寺版(1682)과 龍興寺版(1692)에만 수록되어 있고,¹⁵⁾ 두 판본에서 도상적 구성은

14) 六字大明呪 즉, 음 - 마 - 니 - 반 - 메 - 흠의 地獄, 餓鬼, 畜生, 人間, 阿修羅, 天上의 六道의 세계 및 菩薩을 상징하는 毘盧遮那佛 - 阿閼佛 - 寶生佛 - 阿彌陀佛 - 不空成就佛 - 金剛菩薩을 도상화한 것이다.

15) 底本인 1401年版과 같은 계통인 龍藏寺版(1635)에는 變相圖가 없다.

서로 다르다. 이는 본문은 이전에 내려오던 같은 계통의 판본을 飜刻하였으나 變相圖는 각 사찰에서 임의로 새롭게 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표 6> 「楞嚴經」의 版本과 수록 版畫

版本	版本系統	版畫類型	版畫名
花岩寺版(1433)	a	a	韋太天圖, 釋迦如來說法圖
慈悲嶺寺版(1489)	a	a	"
石頭寺版(1547)	a	a	"
松廣寺版(1609)	a	a	"
雲興寺版(1672)	a	a	"
普賢寺版(1682)	b	독자	"
龍興寺版(1692)	b	독자	"

3.1.9 「長壽經」(原書名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長壽經」의 版畫本은 高麗本으로 1378年版, 조선시대 판본으로 花岩寺版(1443), 圓岩版(1452), 大興寺版(1730)의 4종이다.

이 중 1378年版은 卷首와 本文의 中間에 2종의 變相圖가 있다. 變相圖의 내용은 아이를 낙태시킨 顛倒가 普光正見如來를 찾아가 懺悔하고, 釋迦의 「長壽經」, 說法地을 찾아가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조선시대 판본은 花岩寺版(1443), 圓岩版(1452), 大興寺版(1730) 등 3종의 卷首에 說法圖가 있고, 圓岩版, 大興寺版에는 卷首와 卷末에 韋太天圖가 있다. 이 중 花岩寺版과 圓岩版의 說法圖는 구조와 표현이 동일한 도상을 飜刻하였고, 大興寺版은 眷屬의 표현에서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표 7> 「長壽經」의 版本과 수록 版畫

版本	版本系統	版畫類型	版畫名
1378年版	a	a	普光正見如來說法圖, 釋迦如來說法圖
花岩寺版(1443)	b	b	釋迦如來說法圖
圓岩版(1452)	b	b+	釋迦如來說法圖, 韋太天圖
大興寺版(1730)	c	c	釋迦如來說法圖, 韋太天圖

3.2 佛敎儀式集

3.2.1 「佛說預修十王生七經」

高麗板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은 海印寺 所藏의 鄭晏의 간기가 있는 1246년에 판각한 經板, 13세기 판각으로 추정되는 經板과 이의 飜刻 계통의 板에 版畫가 들어 있다.¹⁶⁾ 1246年板은 木板의 9枚에 變相圖와 十王圖를 연이어서 나열하였고, 13세기 간행으로 추정되는 板은 각 板마다 十王이 재관하는 장면을 세부적으로 묘사하였다.

조선시대 간행된 판본은 廣德寺版(1564), 興栗寺版(1574), 佛岬寺版(1575), 普門寺版(1581), 瑞峯寺版(1601), 松廣寺版(1618), 花岩寺版(1618), 證心寺版(1641), 華嚴寺版(1718)이 전해지고, 판본의 계통은 <표 8>과 같이 刊經都監版 계통(<표 8> 판본계통항의 'a')과 興栗寺에서 1회 독자적으로 간행된 판본(<표 8> 판본계통항의 'b')이 있다.

<표 8>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版本과 수록 版畫

版本	版本系統	版畫類型	版畫名
廣德寺版(1564)	a	독자	說法圖 - 十王圖 - 變相圖
興栗寺版(1574)	b	독자	"
佛岬寺版(1575)	a	a	"
普門寺版(1581)	a	a	"
瑞峯寺版(1601)	a	a	"
松廣寺版(1618)	a	a	"
花岩寺版(1618)	a	a	"
證心寺版(1641)	a	a	"
華嚴寺版(1718)	a	a	"

16) 林基榮, “海印寺 寺刊板殿 所藏 木板 研究,” (博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2009, 41-42.

「佛說預修十王生七經」에 수록된 판화는 釋迦說法圖, 十王圖, 變相圖로 이어지며,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廣德寺版은 9板으로, 1板에 독자적인 釋迦說法圖와 十王圖의 앞부분을 넣었으며, 각 제왕별 眷屬은 두 줄로 배열되었다. 둘째, 興栗寺版은 11板으로, 釋迦說法圖와 뒤에 諸王과 眷屬을 두 줄로 배열하였으나 각 諸王·眷屬이 한 판에 들어가지 않는 불규칙적인 배열이다. 셋째, 刊經都監版 계통은 15板으로, 판화 중 十王圖는 각 諸王과 眷屬을 한 줄로 배열되었으며, 한 판에 규칙적으로 모두 넣었다. 변상도 역시 세 가지 유형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중 廣德寺版(1564)의 본문은 刊經都監版과 판본 계통이 같으나 판화 부분은 차이가 있다.

3.2.2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조선시대 판본은 高麗本을 저본으로 한 刊經都監版(1462)과 새롭게 간행된 王室發願版(1474)이 있으며, 王室發願版 계통을 飜刻하여 鳳停寺版(1769)과 未刊記本이 여러 곳에 전해진다. 수록된 판화는 梁皇寶懺圖¹⁷⁾와 佛像圖로, 梁皇寶懺圖는 1352年版에만 있으며, 이는 앞서 간행된 「慈悲道場懺法」¹⁸⁾의 도상적 구성이 일치한다. 이로 보아 高麗本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의 梁皇寶懺圖 및 佛像圖는 「慈悲道場懺法」의 圖像을 가져와 번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판본에서는 梁皇寶懺圖는 모두 생략되었고, 확인된 판본 모두 佛像圖만 수록되어 있다. 佛像圖는 手印, 佛像의 표현에서 高麗本과 비교할 때 변형된 모습이다.

3.2.3 「禮念彌陀道場懺法」

「禮念彌陀道場懺法」의 판본은 高麗本인 1376年版과 王室發願版(1474), 海

17) 梁武帝가 죽은 황후인 郗氏를 위하여 懺悔하였다는 이 經의 편찬 동기를 간략하게 형상화하여 새긴 도상이다.

18) 일본 南禪寺 所藏本으로, 1282년에 죽은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李德孫의 발원으로 간행되었다.

印寺版(1503), 石頭寺版(1542), 毗盧寺版(1572), 海印寺版(1576), 松廣寺版(1607), 長壽佛堂版(1610)이 전해지고 있다. 高麗本을 제외한 조선시대 판본의 계통은 <표 9>와 같이 王室發願版 계통(<표 9> 판본계통항의 'a')과 海印寺版 계통(<표 9> 판본계통항의 'b')의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수록된 관화인 佛像圖는 조선시대 판본 중 王室發願版 계통과 長壽佛堂版은 佛像圖의 형태가 다르고, 手印의 모양에서 변형¹⁹⁾이 있다.

<표 9> 「禮念彌陀道場懺法」의 版本과 수록 版畫 및 手印 비교

版本	版本系統	版畫類型	版畫名
王室發願版(1474)	a	a	佛像圖, 蓮花紋
海印寺版(1503)	a	a	"
石頭寺版(1542)	a	a	"
毗盧寺版(1572)	a	a	"
海印寺版(1576)	b	未詳	"
松廣寺版(1607)	b	未詳	"
長壽佛堂版(1610)	b	b	"

3.2.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에는 63개의 手印圖가 새겨져 있으며, 手印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印法의 방법, 手印의 모양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각 판본의 도상은 1매의 목판에 수록 내용에 따라 최대 4개의 手印圖가 들어가 있으며, 한 판에 다 새겨지지 않은 도상은 판심 안이나 邊欄 밖으로 나가게 해서 판각하거나 다음 판에 도상을 반으로 나누어 새긴 것도 있다.

19) 釋迦牟尼佛, 阿彌陀佛, 彌勒佛의 手印法이 王室發願版은 下品中生印 - 禪定印 - 合掌印인데 비해 長壽佛堂版은 降魔觸地印 - 下品中生印 - 下品中生印이다.

3.2.5 「天地冥陽水陸雜文」

「天地冥陽水陸雜文」의 판본은 印經木活字版(1496), 松廣寺版(1531), 無爲寺版(1572), 講堂寺版(1581), 龍腹寺版(1635), 道岬寺版(1655), 刊記未詳의 朝鮮後期本 등이 전해진다. 판본 계통은 刊記未詳本을 제외한 모든 판본은 8行 15字인 印經木活字版 계통에 속한다.

印經木活字版 계통에 수록된 판화는 4종으로, 卷首에 ‘阿彌陀佛淨土上生之圖’라 기록된 圖像과 ‘阿彌陀佛淨土上生之圖’의 뒷장에는 ‘尸羅三歸五戒牒’이란 제목이 있으며, 여기서는 僧·法·佛의 三歸依와 ‘不殺生’, ‘不偷盜’, ‘不邪淫’, ‘不忘’, ‘不飲酒’의 五戒에 대하여 표로 만들어 설명한 三歸依의 圖像을 아주 작고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3.2.6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의 판본은 道林寺版(1709), 重興寺版(1721), 道林寺版(1739)이 전해진다. 수록된 판화는 卷首의 韋太天圖와 卷上의 말미에 나오는 位牌의 도상이다. 판본계통이 다른 道林寺版과 重興寺版은 韋太天圖와 位牌, 牌記까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3.2.7 「現行西方經」

「現行西方經」의 판본은 直旨寺版(1448), 七佛寺版(1531), 神光寺版(1556), 雙溪寺版(1710)의 4종이 있으며, 판본의 계통은 각각 다르다.

「現行西方經」에서 판화는 雙溪寺版에만 있으며 位牌와 現行法을 전수하는 도상이 한 매의 목판에 새겨져 있다. 도상은 元岳이 고려시대 수행한 사찰인 居祖寺의 經床 앞에서 元岳과 樂西 스님이 탁자에 앉아 있는 장면으로, 이는 居祖寺에서 樂西가 元岳에게 現行法을 전수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3.2.8 「觀音靈課」

18世紀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求禮 華嚴寺版이 전해지고 있다. 이 책은 본문의 占驗에 기록된 중국 年號의 하한대가 明 天啓元年(1621)이고, 인물 또한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보아 적어도 1621년 이후에 간행된 明版을 수입하여 翻刻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록된 판화는 3종으로, 「觀音靈課」에 있는 도상은 白衣觀音이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장면으로, 觀音菩薩의 앞에는 정병 위에 버들가지가 놓여 있고 위에는 새가 있으며, 아래에는 善財童子가 求道하는 장면을 표현하였다.

「觀音靈籤」의 圖像은 觀音菩薩이 정자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있으며, 정자의 아래에 童子가 합장하고 있다. 또 「天旺時課」의 도상은 버들나무 아래에 탁자를 놓고 역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앉아 占卦를 보는 장면이다.

3.2.9 「准提淨業」

仁祖 7年(1629)에 중국 嘉興府 楞嚴寺에서 간행된 명판본을 翻刻하여 景宗 4年(1724) 華嚴寺에서 간행된 1종의 판본이 전해지며, 명판본을 그대로 번각한 釋迦說法圖와 准提觀音圖가 수록되어 있다.

3.2.10 「禪門祖師禮懺儀文」

夫人寺版(1660)과 이 판본의 翻刻本인 甘露寺版(1666)이 전해지고 있다.

「禪門祖師禮懺儀文」의 판화는 阿彌陀三尊圖와 43祖師圖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43祖師圖는 세밀한 각 祖師의 모습과 함께 용, 코끼리, 말, 사슴, 구렁이 등의 동물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도상의 내용은 주로 설법을 구하는 장면, 공양을 하는 장면이다.

3.2.11 「佛說壽生經」

「佛說壽生經」은 佛岬寺版(1575), 普門寺版(1581), 松廣寺版(1618), 證心寺版(1641), 華嚴寺版(1718)이 확인되며, 여기에 실린 판화는 地藏十王圖와 十二支의 띠를 담당하는 判官과 여러 動物의 圖像을 담은 十二支圖를 수록하고 있다. 전해지는 판본의 판화는 도상의 구성과 표현은 일치하여 모두 같은 계통을 飜刻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부 판본에서 陰陽刻의 판각 부분이나 여백의 처리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4. 版畫의 插入 유형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간행된 밀교경전 중 판화가 수록된 經典은 <표 10>과 같이 20종이 확인되었다.²⁰⁾ 이 중 동일한 판본 계통으로 2회 이상 간행된 경전은 모두 15종이다. 「佛說解百生冤結陀羅尼經」, 「寶篋印陀羅尼經」, 「觀音靈課」, 「准提淨業」, 「現行西方經」은 1회 혹은 2회 이상 간행되었으나 동일 계통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표 10> 密敎經典 版畫本 중 동일한 판본계통에 의해 2회 이상 간행된 경전

密敎經典 版畫本(20종)	동일한 판본계통에 의해 2회 이상 간행된 경전(15종)
佛說解百生冤結陀羅尼經, 寶篋印陀羅尼經, 諸眞言集, 五大眞言, 佛頂心陀羅尼經, 觀世音菩薩靈驗略抄,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現行西方經, 楞嚴經, 佛說預修十往生七經,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禮念彌陀道場懺法,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天地冥陽水陸雜文,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禪門祖師禮懺文, 觀音靈課, 佛說壽生經, 長壽經, 准提淨業	諸眞言集, 五大眞言, 佛頂心陀羅尼經, 觀世音菩薩靈驗略抄,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楞嚴經, 佛說預修十往生七經,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禮念彌陀道場懺法,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天地冥陽水陸雜文,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禪門祖師禮懺文, 佛說壽生經, 長壽經

20) 이 중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본문에 手印圖가 있지만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密敎經典의 版畫本과 版畫의 挿入에 관한 연구

<표 10>에 나타난 2회 이상 간행된 15종의 각 경전별 판본계통과 동일한 계통의 수를 보면, <표 11>과 같이 『佛頂心陀羅尼經』 1계통 2종, 『觀世音菩薩靈驗略抄』 2계통 6종, 『諸眞言集』 1계통 2종, 『五大眞言』 1계통 4종,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2계통 4종, 『楞嚴經』 2계통 7종, 『長壽經』 1계통 2종, 『佛說預修十王生七經』 2계통 10종,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1계통 2종, 『禮念彌陀道場懺法』 2계통 7종, 『天地冥陽水陸雜文』 1계통 6종,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1계통 2종, 『佛說壽生經』 1계통 5종, 『禪門祖師禮懺文』 1계통 2종이 확인되었다.

<표 11> 경전별 동일계통 판본(62종)

經名	동일계통 판본
佛頂心陀羅尼經	王室發願版(1485), 解脫菴版(1561)
觀世音菩薩靈驗略抄	甘露寺版(1716), 證心寺版(1721), 釋王寺版(1728), 神光寺版(1732) 普賢寺版(1728), 伽倻寺版(1762)
諸眞言集	安心寺版(1569), 神興寺版(1658)
五大眞言	王室發願版(1485), 鐵窟版(1531), 哲菴版(1550), 雙鷄寺版(1634)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肅川府館北版(1560), 未詳(1567) 鷲岩寺版(1568), 伽倻寺版(1621)
楞嚴經	花岩寺版(1433), 慈悲嶺寺版(1489), 石頭寺版(1547), 松廣寺版(1609), 雲興寺版(1672) 1403年版, 普賢寺版(1682), 龍興寺版(1692)
長壽經	花岩寺版(1443), 圓岩版(1452)
佛說預修十王生七經	刊經都監版(1469), 廣德寺版(1564), 佛岬寺版(1575), 普門寺版(1581), 瑞峯寺版(1601), 松廣寺版(1618), 花岩寺版(1618), 證心寺版(1641), 華嚴寺版(1718) 興栗寺版(1574)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王室發願版(1474), 鳳停寺版(1769)
禮念彌陀道場懺法	王室發願版(1474), 海印寺版(1503), 石頭寺版(1542), 毗盧寺版(1572) 海印寺版(1576), 松廣寺版(1607), 長壽佛堂版(1610)
天地冥陽水陸雜文	印經木活字版(1496), 松廣寺版(1531), 無爲寺版(1572), 講堂寺版(1581), 龍腹寺版(1635), 道岬寺版(1655)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道林寺版(1709), 道林寺版(1739)
佛說壽生經	佛岬寺版(1575), 普門寺版(1581), 松廣寺版(1618), 證心寺版(1641), 華嚴寺版(1718)
禪門祖師禮懺文	夫人寺版(1660), 甘露寺版(1666)

<표 11>에 나타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계통을 가지는 판본에서 본문과 판화 부분의 판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12>와 같이 동일한 계통의 판본은 대부분 본문과 판화가 모두 같으나 일부는 본문이나 판화의 전체 혹은 판화의 일부만 채택하여 수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서명의 경전이나 같은 서명 다른 계통의 경전에서 필요한 圖像만을 차용한 경우도 있다.

<표 12> 동일계통 판본에서 本文과 版畫의 板刻

經名	원본 및 동일계통 판본	本文			版畫		
		전체	부분	재각	전체	부분	재각
佛頂心陀羅尼經	王室發願 解脫菴版 奉佛菴版 ²¹⁾	○			○		
觀世音菩薩靈驗略抄	甘露寺版 證心寺版, 釋王寺版, 新光寺版 普賢寺版, 伽倻寺版 ²²⁾	○			○		
諸眞言集	安心寺版 神興寺版	○			○		
五大眞言	王室發願 鐵窟版, 哲菴版 ²³⁾ 雙溪寺版	○			○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肅川府版 鷲岩寺版	○			○		
楞嚴經	花岩寺版 慈悲嶺寺版, 石頭寺版, 松廣寺版, 雲興寺版	○			○		
	1403年版 普賢寺版 ²⁴⁾ 龍興寺版 ²⁵⁾	○					○
長壽經	花岩寺版 圓岩版	○					○
佛說預修十王生七經	刊經都監 廣德寺版 ²⁶⁾	○					○
	佛岬寺版, 普門寺版, 瑞峯寺版, 松廣寺版, 花岩寺版, 證心寺版, 華嚴寺版 興栗寺版 ²⁷⁾	○			○		

21) 本文은 王室發願版과 다르지만 版畫 중 일부인 說法圖, 韋太天圖, 位牌는 王室發願版 계통에서 借用하여 飜刻함.

22) 本文은 甘露寺版 계통과 다르지만 版畫는 甘露寺版 계통을 借用함.

23) 本文은 王室發願版 계통이지만 판화 중 일부인 八相圖는 王室發願版 『月印釋譜』(1459)에서 차용하여 추가시킴.

24) 本文은 1403年版 계통이나 판화는 재각함.

25) 本文은 1403年版 계통이나 판화는 재각함. 같은 계통인 普賢寺版과 판화의 도상적 연관성은 없음.

26) 本文은 刊經都監版 계통이나 판화는 재각함.

經名	원본 및 동일계통 판본		本文			版畫		
			전체	부분	再刻	전체	부분	再刻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王室發願	鳳停寺版	○			○		
禮念彌陀道場懺法	王室發願	海印寺版, 石頭寺版, 毗盧寺版	○			○		
	海印寺版	松廣寺版, 長壽佛堂版	○			○		
天地冥陽水陸雜文	印經字版	松廣寺版, 無爲寺版, 講堂寺版, 龍腹寺版, 道岬寺版	○			○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道林寺版	道林寺版	○			○		
佛說壽生經	佛岬寺版	普通寺版, 松廣寺版, 證心寺版, 華嚴寺版	○			○		
禪門祖師禮懺文	夫人寺版	甘露寺版	○			○		

4.1 본문의 계통은 다르나 판화는 같은 경우

4.1.1 普賢寺版 「觀世音菩薩靈驗略抄」

「觀世音菩薩靈驗略抄」는 觀世音菩薩의 功德과 神呪인 大悲心陀羅尼의 靈驗함과 경전의 讀誦을 권장한 책으로, 「千手經」의 핵심인 神妙章句大陀羅尼에 圖像을 넣은 것이라 하여 ‘畫千手’라고도 부른다.

普賢寺版은 英祖 4年(1728)에 平安道 普賢寺에서 刊行된 것으로, 跋文에는 “初刊本을 간직하고 있다가 유통시키고자 1728年 봄에 知俊 등의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행하였다”²⁷⁾고 한다. 여기서 初刊本은 甘露寺版(1716)인 것으로 보이며, 普賢寺版은 義圓이 板下本을 쓰고, 別訓이 板刻을 담당하였다.

普賢寺版은 이전의 판본, 즉 甘露寺版 계통과는 판식이나 내용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甘露寺版의 卷首面의 판식은 無界의 16行 25字인 반면 普賢寺版은 有界의 10行 20字이다.

27) 本文은 刊經都監版 계통이 아니나 판화 중 일부는 刊經都監版 계통에서 借用함.

28) … 特師得此本懷刊布之願而未矣雍正戊申之春仍同志覺俊大師與知俊等募財鏤板於普賢寺 …

- 甘露寺版 - 四周雙邊, 無界(卷首, 跋文), 半匡: 21·22×16cm, 16行 25字(卷首)·9行 17-18字(跋文), 上下白口, 上下內向4瓣花紋黑魚尾 간혹 白魚尾
- 普賢寺版 - 四周單邊, 有界(卷首, 跋文), 半匡: 22.5×15.5cm, 10行 20字(卷首), 9行 19字(跋文),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甘露寺版과 普賢寺版의 본문 중 중요한 변화는 陀羅尼의 배열에 있어 甘露寺版은 한자 - 한글음역 - 한문해설인데 비해 普賢寺版은 悉曇文을 추가시켜 한자 - 한글음역 - 悉曇文 - 한문해설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普賢寺版과 동일한 계통의 판본은 英祖 38年(1762) 伽倻寺에서 간행된 판본이 전해지는데, 본문과 판화는 普賢寺版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普賢寺版의 본문은 이전의 甘露寺版 계통을 변화시킨 새로운 板下本을 만들어 판각하였으나 판화 부분은 이전에 내려오던 甘露寺版 계통의 도상을

區分	卷首面	第1張(1)	第1張(2)
甘露寺版系統			
普賢寺版系統			

<그림 1> 甘露寺版과 普賢寺版의 본문과 圖像 比較

그대로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판본에 없던 실담문을 추가하기 위해 본문은 다시 하고 판화는 새롭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甘露寺版과 普賢寺版에 수록된 50개의 도상을 비교해보면 <그림 1>과 같이 도상의 구성과 모양이 거의 일치한다. 다만 普賢寺版은 甘露寺版에 비해 하단에 있는 본문의 판식 변화로 상단에 있는 도상의 크기가 미세하게 줄어들어 대상물의 크기가 약간 축소되었거나 하단부의 여백이 좁아진 부분도 있다. 거친 각을 이루는 대상물을 표현할 때는 <그림 2>와 같이 일부 陰陽刻의 표현이나 선의 처리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과 체제는 같다.

區分	第9圖	第15圖	第29圖
甘露寺 版系統			
普賢寺 版系統			

<그림 2> 거친 각을 이루는 선에 의한 대상물의 표현

4.2 본문의 계통은 같으나 판화는 다른 경우

4.2.1 普賢寺版·龍興寺版 「楞嚴經」 變相圖

「楞嚴經」은 唐 般刺蜜帝가 번역하고 宋 戒環이 해설한 책으로, 흔히 ‘大佛頂首楞嚴經’, ‘首楞嚴經’, ‘楞嚴經’으로도 일컬어진다.

「楞嚴經」에 수록된 판화는 韋太天圖와 釋迦說法圖이다. 현전 판본 중 花岩寺版(1433) 계통의 慈悲嶺寺版(1489), 石頭寺版(1547), 松廣寺版(1609), 雲興寺版(1672), 1401年版 계통인 普賢寺版(1682), 龍興寺版(1692)의 卷首에 수록되어 있다. 이 중 花岩寺版 계통의 변상도는 도상의 구성 및 표현이 일치하여 같은 계통의 본문과 판화를 계속해서 번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401年版 계통의 普賢寺版(1682)과 龍興寺版(1692)의 변상도는 기본적인 구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 2種의 판본은 <표 13>과 같이 판식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계통상으로는 信聰이 板下本을 쓰고, 權近의 跋文이 있는 1401년판 계통²⁹⁾이다.

<표 13> 1401年版 계통 판본의 版式과 版畫의 有無

版本	版式	版畫有無
1401年版	四周雙邊, 26~27.0×18.0cm, 無界, 8/20, 無魚尾	無
龍藏寺版	四周單邊, 25~25.5×17.5cm, 無界, 8/20, 無魚尾	無
普賢寺版	四周單邊, 25~25.5×17.5~18cm, 無界, 8/20, 無魚尾	有
龍興寺版	四周單邊, 24.5~25.5×17~17.5cm, 無界, 8/20, 內向4瓣混入黑魚尾	有

普賢寺版의 圖像(<그림 3> 참조)을 보면, ‘大佛頂首楞嚴經法會聖像’의 變相名이 있다. 도상의 구성은 우측에는 文殊菩薩을 포함하여 12菩薩과 4弟子, 2四天王, 八部衆의 일부 眷屬이 포함되어 있다.³⁰⁾ 釋迦如來의 臺座 아래에는 左右에

29) 1401年版 계통과 같은 판본계통인 龍藏寺版(1635)은 變相圖가 없다.

30) 花岩寺版에 비해 說法圖는 菩薩, 弟子 등의 眷屬의 수가 축소되었다. 花岩寺版 계통의 경우

2명의 弟子가 서로 合掌하고 앉아 있는데 왼쪽의 제자는 花岩寺版과 마찬가지로 阿難이고, 오른쪽의 제자는 文殊師利로 추정된다.³¹⁾

龍興寺版의 變相圖(<그림 4> 참조)는 普賢寺版보다 더 간략하게 표현되었으며, 眷屬들의 圖像도 커졌다. 變相名은 ‘大佛頂首楞嚴經變相’이고, 變相名 아래에는 致一, 文槩이라 새겨진 畫刻者가 기록되어 있다. 說法圖에서는 釋迦如來를 중심으로 左右 挾侍菩薩인 文殊菩薩과 普賢菩薩을 포함한 12菩薩과 釋迦如來의 左右에는 阿難 등의 弟子가 배치되어 있다.

釋迦如來는 사각형에 가까운 頭光과 身光을 지니며, 위에는 化佛이 있다. 釋迦如來의 우측에는 左挾侍인 文殊菩薩을 포함한 6菩薩과 5弟子, 2四天王 및 4聽衆, 좌측에는 右挾侍인 普賢菩薩을 포함한 6菩薩, 5弟子, 2四天王, 梵天이 배치되어 있다. 釋迦의 臺座 앞에는 阿難과 뒤로 摩登伽女가 무릎을 꿇고 앉아 合掌을 하고 있다. 說法圖의 左右 중단부의 맨 끝에는 善男子, 善女人의 聽衆들이 說法을 듣고, 아래에는 四天王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듯 본문의 판본 계통에 있어 普賢寺版과 龍興寺版은 1401年版을 底本으로 한 같은 계통의 판본이나 판화 부분은 서로 다르다. 현전하는 동일한 계통의 판본 중 1401年版과 龍藏寺版(1635)은 變相圖가 수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變相圖는 각 사찰에서 새롭게 새겨 넣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 普賢寺版 「楞嚴經」 變相圖(藏書閣 所藏)

14菩薩과 阿難尊者, 6弟子, 四天王, 八部衆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31) 朴桃花,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150.



<그림 4> 龍興寺版 「楞嚴經」 變相圖(國立中央圖書館 所藏)

4.2.2 廣德寺版 「佛說預修十王生七經」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은 豫修齋³²⁾에 관한 경전으로, 說法圖, 十王圖, 變相圖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간행된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은 刊經都監版 계통인 廣德寺版(1564), 佛岬寺版(1575), 普門寺版(1581), 瑞峯寺版(1601), 松廣寺版(1618), 花岩寺版(1618) 證心寺版(1641), 華嚴寺版(1718)과 1회 독자적으로 간행된 興栗寺版(1574)이 확인되었다. 이 중 廣德寺版은 明宗 19年(1564) 華山 廣德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嘉靖四十三年甲子暮春日 華山廣德寺開刊’의 간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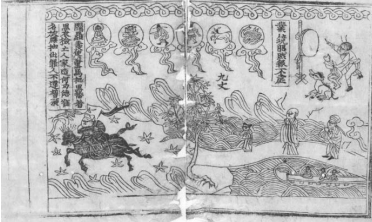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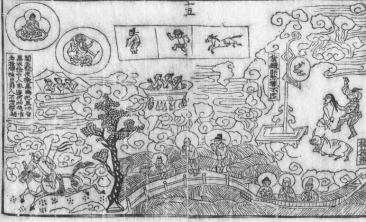
廣德寺版	刊經都監版 系統
<p>佛說預修十王生七經 謹啓 願圖生往生淨土 願諸勸有 緣以五舍 願入 願念 阿彌陀佛 或 願 念 五 舍 門 願 此 述 佛說 圖 羅 陀 陀 回 願 修 生 往 生 淨 土 經 如 來 臨 最 濕 燥 時 廣 名 天 寶 地 祇 因 爲 欲 慶 三 投 記 乃 將 生 七 預 修 經 如 是 我 聞 一 時 佛 在 尸 那 城 阿 羅 漢 提 河 邊 安 羅 變 指 開 勝 嚴 淨 輝 身 放 光 普 照 大 衆 及 諸 善 盡 靡 訶 讚 天 龍 神 王 天 帝 釋 四 天 大 王 大 梵 天 玉 侍 偷 羅 玉 諸 大 國 玉 關 羅 天 子 大 山 府 君 司 命 司 錄 五 道 大 神 地 獄 官 典 典 衆 來 集 會 歡 禮 世 尊 合 掌 而 立 讚 曰</p>	<p>佛說預修十王生七經 謹啓 願圖生往生淨土 願諸勸有 緣以五舍 願入 願念 阿彌陀佛 或 願 念 五 舍 門 願 此 述 佛說 圖 羅 陀 陀 回 願 修 生 往 生 淨 土 經 如 來 臨 最 濕 燥 時 廣 名 天 寶 地 祇 因 爲 欲 慶 三 投 記 乃 將 生 七 預 修 經 如 是 我 聞 一 時 佛 在 尸 那 城 阿 羅 漢 提 河 邊 安 羅 變 指 開 勝 嚴 淨 輝 身 放 光 普 照 大 衆 及 諸 善 盡 靡 訶 讚 天 龍 神 王 天 帝 釋 四 天 大 王 大 梵 天 玉 侍 偷 羅 玉 諸 大 國 玉 關 羅 天 子 大 山 府 君 司 命 司 錄 五 道 大 神 地 獄 官 典 典 衆 來 集 會 歡 禮 世 尊 合 掌 而 立 讚 曰</p>

<그림 5> 廣德寺版과 다른 刊經都監版 系統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卷首面

32) 預修齋는 ‘預修十王生七齋’의 약칭으로, 자기의 死後를 생각하여 미리 冥府의 十代王과 眷屬들에게 미리 齋를 올리고 자신의 명복을 스스로 닦는 것을 말한다.

廣德寺版은 刊經都監版을 底本으로 하여 板下本을 새로 만들어 간행하였기 때문에 본문은 간경도감판 계통과 대체로 같으나 판화부분은 차이가 있다.

廣德寺版의 도상은 총 9板에 관각되어 <그림 6>과 같이 第1板에는 독자적인 釋迦說法圖와 十王圖의 앞부분(諸大國王, 天龍神王, 阿修羅王)을 넣었으며, 각 제왕별 眷屬은 두 줄로 배열되었다. 광덕사판을 제외한 刊經都監版 계통의 도상은 모두 15板으로, 第1板에 說法圖가 있고, 이후 十王圖는 각 諸王과 眷屬을 한 줄로 한 판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區分	廣德寺版	刊經都監版 계통
說法圖		
十王圖		
變相圖		

<그림 6> 廣德寺版과 刊經都監版 系統의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판화부분 비교

4.3 다른 경전에서 차용된 경우

4.3.1 다른 서명의 경전에서 차용

4.3.1.1 萬淵寺版 「諸眞言集」

『諸眞言集』은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藥王菩薩陀羅尼, 勇施菩薩陀羅尼, 普賢菩薩陀羅尼, 仁王護國般若陀羅尼 등의 眞言을 수록한 것으로, 安心寺版(1569), 神興寺版(1658), 佛影臺版(1688), 萬淵寺版(1777), 望月寺版(1800)이 전해지며, 이 중 佛影臺版은 판화가 없다.

萬淵寺版 『諸眞言集』은 正祖 1年(1777)에 이 책의 본문격인 『諸眞言集』을 완성하고, 畫像千手を 추가하여 3년 후인 1780년에 간행하였다.

畫像千手に 실린 圖像은 觀音菩薩圖 1종과 畫千手 50呪解圖가 실려 있으며, 이러한 도상은 이 책을 만들 때 새롭게 도상을 그려 판각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내려오던 『觀世音菩薩靈驗略抄』의 도상을 차용하였다.

<그림 7>과 같이 萬淵寺版 『諸眞言集』에 실린 畫像千手的 맨 앞부분에 나오는 觀音菩薩圖과 甘露寺版(1716) 『觀世音菩薩靈驗略抄』의 觀音菩薩圖를 비교



<그림 7> 「觀世音菩薩靈驗略抄」, 「諸眞言集」 畫千手 1面

해보면 연결된 내용의 변화에 따른 도상의 구도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도상의 구성과 크기는 비슷하다. 또 다라니의 배열은 甘露寺版 『觀世音菩薩靈驗略抄』은 漢字呪文 - 한글呪文 - 呪文을 해설한 한문으로 배열되어 있으나 萬淵寺版 『諸眞言集』은 悉曇文이 추가되어 있다.³³⁾

萬淵寺版의 畫千手 50呪解圖 역시 <그림 8>과 같이 甘露寺版 『觀世音菩薩靈驗略抄』의 도상과 비교해보면, 도상의 구조, 형태, 크기, 음양각 등 세부적인 표현에서 거의 일치한다.



<그림 8> 『觀世音菩薩靈驗略抄』의 도상을 借用한 『諸眞言集』(萬淵寺版) 畫千手

33) 앞서 언급한 普賢寺版 『觀世音菩薩靈驗略抄』에도 悉曇文이 있으나 배열이 다르므로 普賢寺版을 변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상단의 도상은 이전에 내려오던 판본, 즉 甘露寺版 『觀世音菩薩靈驗略抄』 내지 甘露寺版 계통의 판본을 飜刻하였으며, 하단부의 내용은 새롭게 板刻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4.3.1.2 哲菴版 『五大眞言』

이 책은 明宗 5年(1550) 哲菴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서울대학교 일사문고에 소장되어 있다.³⁴⁾ 哲菴版의 판본 계통은 王室發願版(1485) 계통으로, 王室發願版(1485)의 모든 판본³⁵⁾에는 四十二手眞言의 도상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유독 철암판에는 八相圖의 제5도인 雪山修道相과 제6도인 樹下降魔相이 삽입되어 있다.

철암판 『五大眞言』에 수록된 第6圖인 樹下降魔相은 부처가 成道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第1冊의 맨 앞에 위치한다.

樹下降魔相에는 석가가 正覺에 들러하자 魔王이 32가지 악몽을 꾸는 장면(魔王得夢), 魔王이 세 딸을 보내 석가를 유혹하려다 도망치는 장면(魔女眩媚), 마왕이 코끼리를 타고 석가를 위협하는 장면, 魔王이 80억 무리들을 모아 부처를 몰아내려는 장면(魔軍拒戰), 魔王이 부처 앞에 있는 작은 병을 끌려고 하나 요동하지 않고 魔軍이 무너지는 장면(魔衆曳瓶) 등이 표현된다.³⁶⁾

八相圖의 第5圖인 雪山修道相은 雪山에 들어가 6년 동안 선정과 고행을 하면서 修道하는 장면을 나타낸 것으로, 제3冊의 卷末에 위치하고 있다.

도상의 구성은 우측 상단부에는 태자의 머리 위로 새 한 마리가 있고, 앞에서 어린 아이가 풀잎으로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고, 橋陳如 등의 대신들이 궁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여도(勸請回宮) 오로지 苦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우측 하단부에는 스스로 삭발하는 장면(金刀落髮), 帝釋天이 탑을 세우려고 머리카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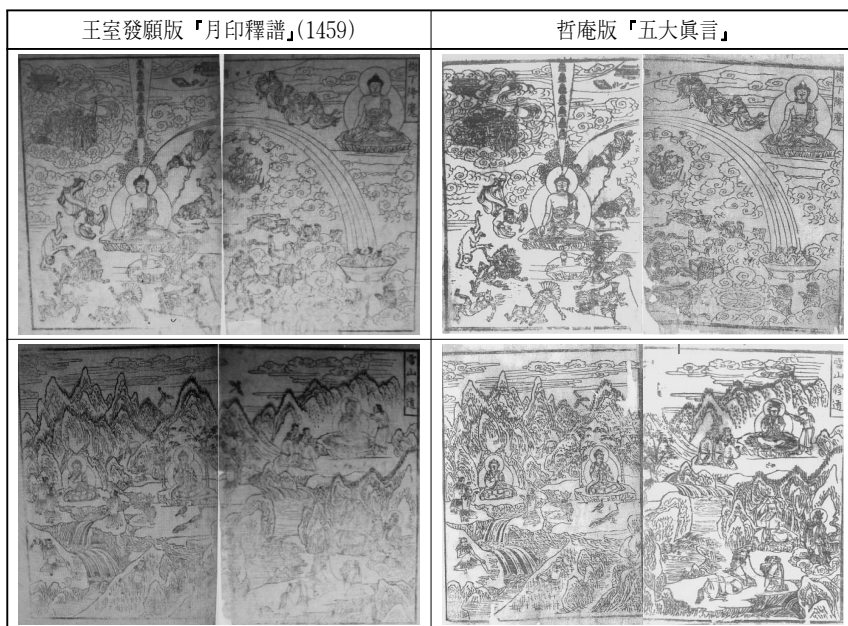
34) 一菴文庫 所藏의 이 책은 元, 亨, 利, 貞의 4冊으로 製冊되어 있고, 1책의 卷首와 3책의 卷末에 變相圖가 위치해 있다.

35) 鐵窟版(1531), 哲菴版(1550), 雙溪寺版(1634).

36) 김정희, 『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 (과주: 돌베개, 2009), 176.

을 받는 장면, 車匿이 말과 함께 앉아서 태자와 하직하기를 슬피하는 장면(車匿辭還)이 표현되어 있다.

哲菴版 『五大眞言』에 수록된 이러한 八相圖의 도상적 구성과 표현은 <그림 9>와 같이 寶物 745-1號인 王室發願版 『月印釋譜』(1459)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도상의 삽입은 後代에 다시 製冊하는 과정에서 다른 책의 變相圖를 끼워 넣을 수도 있지만 邊欄 밖의 판각 기록과 간기 부분에 나타난 간행참여자 명단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오류는 아니다.³⁷⁾ 그러나 왜 哲菴版 『五大眞言』에 유일하게 八相圖를 삽입하였고, 그 중 雪山修道相, 樹下降摩相의 두 개의 판화만 수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림 9> 『月印釋譜』의 도상을 借用한 哲菴版 『五大眞言』 八相圖

37) 雪山修道相의 우측 欄外에 있는 施主名 '張春山'이 간기 부분의 施主秩에서도 나온 것으로 보아 이 책을 간행할 때 함께 판각한 것이 확인되었다.

4.3.2 같은 서명의 다른 계통에서 판화의 일부를 차용

4.3.2.1 奉佛庵版 「佛頂心陀羅尼經」³⁸⁾

仁祖 9年(1631) 경상도 尙州 소재의 奉佛庵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이전에 간행된 왕실발원판 계통과는 달리 본문의 삽도가 없는 새로운 판화본을 만들어 간행하였다. 그러나 삽도를 제외한 판화의 일부분인 水月觀音圖·位牌, 韋太天圖는 王室發願版(1485) 계통의 도상을 그대로 번각하였다. 그러나 왕실발원판 계통에 수록된 한 면의 도상을 그대로 飜刻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채택하여 삽입하였다. 즉 <그림 10-1>과 같이 奉佛庵版은 본문의 삽도가 없이 8行 16字로 배자되어 王室發願版과는 다른 판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삽도를 제외한 水月觀音圖, 韋太天圖, 位牌의 도상을 보면 왕실발원판과 거의 일치하여 같은 계통을 번각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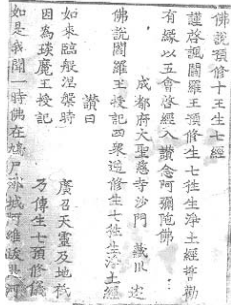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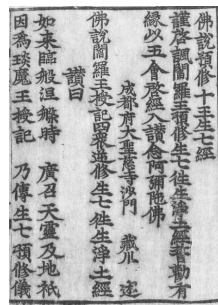


왕실발원판의 水月觀音圖(<그림 10-2> 참조)는 卷首의 1枚의 목판에 水月觀音圖와 位牌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반면 奉佛庵版은 水月觀音圖만 넣고 좌측의 位牌는 다른 위치에 넣어 새롭게 판각하였다. 또 王室發願版의 卷末에 있는 韋太天圖(<그림 10-3> 참조)는 奉佛庵版에서는 位牌와 같은 판에 삽입하여 卷首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奉佛庵版은 본문은 새로운 板下本을 만들었으나 판화 중 일부는 내려오던 다른 계통의 판본에서 借用해서 삽입하였다. 다른 계통에서 판화의 일부만 차용한 것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삽화의 필요성이 없게 되자 한문으로만 된 새로운 板下本을 만들고, 판각이 용이한 일부 판화의 경우 이전에 내려오던 도상 중 일부만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38) 서울대 가람문고,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만송문고 등에 소장중이며 대체적인 판식은 四周單邊, 19.5×15.0cm, 有界, 8行 16字, 上下內向2-4瓣花紋魚尾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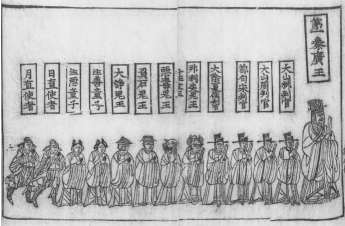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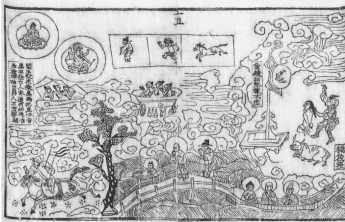
刊畫 道成, 刻字 姜允의 기록이 있다

興栗寺版은 다른 『佛說預修十王生七經』 판본과는 版式 및 판화에 있어 차이가 있는 다른 계통에 속한다. 그러나 판화 중 전체를 새롭게 판각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刊經都監版 계통을 차용하였다.

興栗寺版의 본문은 <그림 11-1>과 같이 8行 18字인 刊經都監版 계통과 다른 9行 17-18字로 되어 있다. 興栗寺版의 판화부분을 보면 十王圖는 諸王과 眷屬을 두 줄로 배열하였으나 각 諸王·眷屬이 한 판에 다 들어가지 않는 불규칙적인 배열을 하여 한 줄로 배열한 간경도감판 계통과 차이가 나타난다. 卷末에 위치한 변상도는 구성 및 체제,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卷首에 위치한 說法圖는 간경도감판 계통과 구성 및 체제, 권속 등이 일치한다. 이는 本文, 十王圖, 變相圖는 새로운 板下本을 만들고, 說法圖는 간경도감판 계통에서 차용하여 번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區分	興栗寺版	刊經都監版 系統
卷首一面 (1)		
說法圖 (2)		

<그림 11> 판화중 일부(說法圖)만 다른 계통의 판본에서 차용된 「佛說預修十王生七經」

區分	興栗寺版	刊經都監版 系統
十王圖 (3)		
變相圖 (4)		

<그림 11> 판화중 일부(說法圖)만 다른 계통의 판본에서 차용된 「佛說預修十王生七經」(계속)

5. 結 言

본 연구에서는 약 20여종의 밀교경전 판화본의 판본과 수록된 판화의 유형에 대하여 개괄하고, 그 중 동일한 판본 계통을 가지는 판화본을 대상으로 판화의 삽입과 차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같은 경전의 본문과 수록된 판화는 항상 동일한 계통을 함께 飜刻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 내지 판화 중 한 부분을 다른 계통의 판본에서 해당부분을 채택하여 번각하기도 하였다.

普賢寺版 『觀世音菩薩靈驗略抄』는 이전에 내려오던 판본과는 다른 본문의 변경으로 인해 본문은 새로운 판화본을 만들어 간행하였으나 판화부분은 새롭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내려오던 다른 계통의 판본에서 판화만을 채택하여 번각하였다. 普賢寺版, 龍興寺版 『楞嚴經』의 경우 같은 계통의 판본이나 판화가 서로 다른 것은 해당 사찰에서 변상도를 새롭게 판각하여 삽입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서명의 경전이나 같은 서명의 다른 계통의 판본에서 전체 혹은 일부의 판화를 차용하기도 하였다. 萬淵寺版(1777) 『諸眞言集』에 실린 畫千手는 『觀世音菩薩靈驗略抄』의 도상을 차용하였고, 『五大眞言』 중 哲菴版(1550)에 유일하게 수록된 八相圖는 王室發願版(1459) 『月印釋譜』에 수록된 것과 같은 도상을 借用하여 번각하였다.

같은 서명의 다른 계통인 판본에서 판화 중 일부만 차용된 경우로는 奉佛庵版(1631) 『佛頂心陀羅尼經』과 興栗寺版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이 있다. 奉佛庵版(1631) 『佛頂心陀羅尼經』은 삽도를 제외한 水月觀音圖와 位牌, 韋太天圖는 王室發願版 계통의 도상을 번각하였고, 興栗寺版(1574)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은 十王圖, 變相圖는 새롭게 만들었으나 說法圖는 刊經都監版 계통의 도상을 일부만 채택하여 번각하였다. 이는 간행 당시 마땅한 畫者가 없거나 판각의 어려움, 불필요성으로 인해 이전에 내려오던 경전의 도상 중 필요한 일부만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정희. 『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 과주: 돌베개, 2009.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朴桃花. “高麗佛畫와 西夏佛畫의 圖像의 관련성.” 『古文化』 第52輯(1998). 65-83.
- 朴桃花.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博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7.
- 禹秦雄. “韓國 密敎經典의 版畫本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2010.
- 李慶成. 『韓國美術史』. 서울: 문화교육출판사, 1973.
- 林基榮. “海印寺 寺刊板殿 所藏 木板 研究.” 博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2009.
-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 海印寺. 『海印寺 毗盧遮那佛 腹藏遺物 特別展』. 합천: 해인사, 2008.